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Fax: 949.854.4018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에배 안내



- 유아부(2-3세)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유치부(4-5세)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유년부(1-3학년)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초등부(4-6학년)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영어중등부(BYM Jr.)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영어고등부(BYM)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한어중고등부(CIM) / 온라인 예배
11:3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예배
9:15AM(청소년) & 11:30AM(어린이)
- BETHEL GRACE CHURCH / 온라인 예배
10:30AM
- 日本語 礼拝 / 온라인 예배
1:30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us.cts.tv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0부 예배 | (토) 5:00PM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15AM 3부 예배 | 11:3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0, 1, 2, 3부/히브리서 13:5-6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5:27-32
- 말씀 Message 0,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히브리서 강해(44) 돈 사랑 그만하기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하나뿐인 내 인생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0, 1, 2, 3부/주 안에 있는 나에게(찬455/새370장)
- 헌금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헌금송: 1, 2, 3부/목투스

*결단찬양 Song of Commitment All together 다같이
0, 1, 2, 3부/믿음 in '21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코로나를 통해 배우는 교훈 2 - 사회적 거리

Lessons Learned from Coronavirus 2 - Social Distancing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일상의 언어가 된 것이 사회적 거리입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단어가 붙어서 신조어가 탄생된 것입니다. 큰딸이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늘 성적표에 따라다니던 선생님들의 평가가 기억납니다. "She is very social! 아주 사교적입니다!" '사회적'이라는 뜻은 사람들이 가깝게 어울리며 잘 섞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서로 '거리'를 두라는 말이 사회적 거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아파도 죽을 정도가 아니면 학교는 반드시 가야 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몸에 열이 좀 있어도 타이레놀을 먹여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아이를 조퇴시킨다는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학교에 가서 아이를 데려오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학습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다른 친구들에게 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교는 몸이 아파도 간다는 저의 철칙이 무너졌습니다. 배우려는 나의 열심이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이 자제되었고, 매일 있었던 저녁 약속도 없어지면서 집으로 정시 퇴근하여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도는 일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컴컴한 거리를 까만 트레이닝 복을 입고 마스크에 모자까지 쓰고 걷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 이런 복장으로 밤에 걷고 있으면, 틀림없이 강도가 아닐까 의심받았을 것 같은데, 요즘은 오히려 이런 모습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배려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걷다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앞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면 다시 마스크를 씩습니다. 코로나 이전 같으면 "너랑 상종 안 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배려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연코 장담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몸이 안 좋을 때, 마스크를 써서 본이 아니게 남에게 전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모습 말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에서도 틀림없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당신과 말 안 해" "나 화났어"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당신을 배려합니다" "사랑의 사회적 거리"라는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 집콕 방콕의 격리를 통해 배운 값진 "사랑의 사회적 거리" 교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서히 대면의 세계로 나오며 기지개를 켜는 이 시기, 나의 말 한마디라도 남을 해하는 바이러스가 되지 않도록 영적인 마스크를 명심합시다.

약 3:2-3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Social Distancing has become a daily language since Coronavirus. Two incompatible words came together to create a new expression. I am reminded of every teacher's evaluation on my oldest daughter's report card since kindergarten. "She is very social!" Being 'social' means that you get along well with others. However, at the same time, 'distancing' refers to social distance, space between each other.

When I was young, I was told that you must go to school unless you are dying. Obviously, when my children were not feeling well with mild fever, I would give them Tylenol and send them to school. What I have also learned through experience is that whenever this happens, I will inevitably get a call from teacher to take the child home early. The fact is that my child can infect other children. My set rule of children going to school no matter how sick they were is crumbled. Beyond wanting to learn, I did not think about harming someone else.

Our social activities became restrained from Coronavirus. Daily dinner engagements disappeared. Coming home right after work and taking a walk around the neighborhood after dinner have become a habit. A thought came to my mind as I was walking at dusk wearing a black training suit and a mask. Before Coronavirus, if I walked at night wearing this attire, a mask and a hat, I would have looked suspicious to others. Now, this is seen as 'not causing harm to others', being considerate to others. When I walk now, I take my mask off to breathe in the fresh air, but as soon as I see someone walking towards me, I put my mask back on. Prior to Coronavirus, this would be a message of "I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you!", but now this has become a message of consideration "for your health". I am confident that, even after Coronavirus, we will see people with masks. This is to be considerate and to protect others from infection when you are feeling sick.

I think we will have people wearing masks in our in-person worship as well. This may have sent off negative messages like "I'm not talking to you" "I am mad" before Coronavirus. Now it will become messages of "I am being considerate of you" "social distancing of love". I hope we will not forget this valuable lesson of "social distancing of love" that we learned while isolating, house-bound and room-bound. Slowly as we return to being with others, and as we stretch out from being bound, we need to remember to wear our spiritual masks and not harm others with virus of words.

James 3:2-3 For we all stumble in many ways. And if anyone does not stumble in what he says, he is a perfect man, able also to bridle his whole body. If we put bits into the mouths of horses so that they obey us, we guide their whole bodies as well.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로드맵

히브리서 강해

주일설교시리즈 제 44 편

토요 0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돈 사랑 그만하기

(히 13:5-6)

1.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돈 설교'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 점수를 준다면?

적용하기



2. 히브리서 설교자는 신앙 때문에 돈의 손해를 본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참고/ 히 10:32, 34). 돈은 그 자체가 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성경구절에서 경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마 6:24 한 사람이 두 ()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 딤후 6:10 돈을 ()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3. 돈에 대한 오해를 정리해 봅시다.

- 돈은 ()이 아니라, ()이다.
- 부자 = () 아니다.
- 부자 = () 아니다.

4. 돈을 사랑하지 않는 비법은 가족의 비결입니다(5절).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설교자와 사도바울이 말하는 가족을 배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6절, 빌 4:11-13)

5. 부자를 보고 '잘 산다'는 표현을 우리는 합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족의 비결을 배운 자의 삶일 것입니다. 아래 구절을 읽으면서 가족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 봅시다. (참고/ 마 6:21, 고후 6:10, 고후 8:9)

베델 예배
수요 프로젝트

베델이 간다 & 베델 Q

지난 5주간 베델의 수요일은 선교 다큐 "불 Fire"로 인해 뜨거웠습니다. 터기와 이슬람권 6 개국에서 활활 불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를 생동 감 있게 보고 들으며, 우리도 성령의 불의 전달 자가 되길 기도하며 소망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수요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성도 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더 자주 소통 하는 베델교회가 되기 위해 새로이 기획 제작된 "베델이 간다"와 "베델 큐" 두 가지 프로그램이 3월 10일부터 성도님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베델이 간다"는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했던 베델 성도님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와 안부를 전하고 응원해 드리는 콘텐츠입니다. 교회도 이제 제한적이나마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고 코로나 확

진자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교회에 직접 나오기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들께 이 프로그램 "베델이 간다"를 통해 교회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뵙고 안부를 여쭙며 응원해 드리려 합니다.



"베델 큐"는 양방향 소통의 성경 강의 콘텐츠입니다.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물어



보지 못해 늘 마음속에 갖고 있던 신앙적, 신학적 질문들에 대해 성도님이 직접 질문하시고 목회자가 답해 드리는 형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한 걸음 나아가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수요 프로젝트 "베델이 간다"와 "베델 큐"는 이제까지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목회자들의 자세한 설명과 대담으로, 속 시원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색다른 신선함이 가득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형식으로 출발하는 수요 프로젝트 "베델이 간다" 그리고 "베델 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베델의 모든 성도님이 교회와 더 끈끈하게 소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함께 성장해나가는 귀한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문의: 김성균 집사 (949) 838-4110



꼭꼭 다져진 담력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향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베델교회, 셀식구들과 공동체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묶어주신 은혜의 공동체 에바다 2 셀은 모두 일곱 가정입니다. 먼저 많은 재주와 능력, 부지런함까지 겸비하신 신실하신 목사 이근웅 장로님, 항상 운우와 겸손으로 남의 필요에 민감하시고 먼저 채워주시는 지

혜로우신 동역자 가인 권사님, 부드러운 미소와 다정함으로 잉꼬부부의 애칭을 갖고 계시는 오상현 장로님, 경진 권사님, 화와이에서 오셔서 인지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서로 합하는 뜻을 가진 Aloha의 향기를 풍기시는 최태식 장로님, 현숙 권사님. 잔잔하고 차분한 유머 감각을 겸비하시고 사진작가로도 솜씨가 뛰어나신 김대갑 집사님, 은숙 권사님. 아름다운 자연의 식물원 같은 뒤뜰에 갖가지 꽃나무로 취미를 넘어 정원의 고수가 되신 박신영 집사님, 현숙 권사님. 얼마 전 투병으로 힘드셨던 곽웅길 집사님을 천국에 잘 보내시고 이제 홀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계시는 장하신 관역자 권사님. 휴스턴에서 이곳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한없이 감사하며 감동으로 사는 신승우 집사와 신강 권사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엄청난고도 불안정한 제한 속에서 감격의 현장 예배는 영상으로 대체되었습니

다.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셀목자님의 수고와 섬김 가운데 작년 6월 말부터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 zoom으로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느꼈던 화면으로 만나는 zoom의 어색함도 뒤로하고 이제는 능숙하게 매 주일 뒷배경도 바꾸고 단장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셀 모임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높이는 찬양과 함께 시작되는 셀 모임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기도하며 또 간증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와 격려로 채워갑니다.

지구적인 위기 팬데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함께 믿음의 담력을 키우고 훈련하는 은혜의 공동체 우리의 셀 모임. 다져진 믿음의 담력으로 함께 완주하고자 하는 인내와 노력이 더해져 우리의 영적인 고도를 한 층 더 높이는 한 해를 소망합니다.

신강 권사



목양지원 사역팀

1. 목양지원 사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목양지원 사역은 베델의 모든 목회진들이 원활하게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원하는 사역입니다. 목회진과 성도 간의 중간 교량 역할을 하는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돕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 목양지원 사역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목양지원 사역은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목회진들이 우리 성도님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보살피며 지지하고 원활하게 교회사역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사역 관련하여 목회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최선을 다해 목회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교인들이 화합하여 함께 사역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거나, 상

황에 따라서 교인들의 협조를 얻어 사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3. 목양지원 섬김을 통한 은혜와 감사를 나눠주시겠어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목회진들을 섬길 수 있어 늘 기쁨과 감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진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과 의미를 대신해 목사님들을 보필하며 섬길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4. 사역팀을 맡으면서 마음가짐이 있으시다면?

목양지원팀을 맡으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막막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며 각종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드시느라 수고하시는 목회진에 대한 섬김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회

진들을 위해 옆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성껏 섬기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5. 기도제목과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제목으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서 항상 성령충만 하셔서 저희 양들을 보살피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목사님 가정들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목양지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 섬기실 수 있으신 분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6

베델사역 바이블클럽

어찌! 꿀보다 더 단지요..

새해가 되면 성경 통독을 희망하고 목표로 세우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정적으로 출발하십니다. 그런데 시작과는 달리, 2월 쯤 되면 그 굳은 결심이 서서히 식어, 신약 정도만 통독해보자고 목표를 낮추셔서 마태복음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안타깝게도 3월 정도가 되면 성경 통독 결심은 다음 해로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바이블 클럽은 매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려는 성도님에게 성경 통독의 동기부여 기회와 더불어 완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베델교회의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블 클럽 진행 방법]

바이블 클럽은 성경공부가 중점이 아니라 성경 통독이 목표입니다. 성경에 담긴 귀한 하나님 말씀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App 사용해서 라디오 방송/팟캐스트 형식으로 성경을 들으면서 동시에 펴 놓은 성경을 함께 읽는 형식입니다. 팬데믹 전에는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모

여서 함께 들으면서 읽었지만, 요새는 각자 본인 편한 시간에 읽으시고, 카톡방을 활용해서 나눔과 기도 내용을 적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이충경 목사님께서도 격려와 인도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카톡방에서 나누는 것이 어색했지만, 적응되면서 통독하기에 많은 도움이 되신다는 좋은 반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16주 프로그램과 길게 진행되는 48주 프로그램으로 두 그룹이 나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그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인 중 61% 정도만 성경을 통



독했다고 합니다. 베델 성도님 모두 성경 통독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일독하신 분들도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느껴지시며 살아있는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는 귀한 경험을

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 일독에 필요한 시간이 약 40시간이라고 합니다. 꼬박 한 자리에서 6시간이란 긴 시간을 1주일에 읽기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1주일 휴가 가는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계획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읽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복학기 등록은 마감했지만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황세현 집사

베델교육부
CM 한어 중고등부

아직도 생생한 다짐, 진행중!



한 해를 엘리야 새벽기도회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비록 성도님들과 본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아쉬웠지만, 이것 또한 주님께서 뜻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덕분에 조금 더 편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모니터 앞에 가족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엘리야 새벽기도회는 끝났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은혜는 한없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태영(12학년)



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태해져서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해야겠다는 다짐 하나로 버텼습니다. 올해 엘새의 슬로건인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제 마음에 아주 크게 와 닿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자'라고 생각했을 때, 진실한 태도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 예전에 말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엘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어, 제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었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달세!

최민재(11학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년과 달리 이번 엘리야 새벽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초, 졸린 눈을 비비고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6일간의 엘새는 저에게 "집이 곧 예배의 현장이고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어디에서든 기도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장소에 상관없이 그곳이 곧 하나님과 만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엘새로 제가 얻게 된 행복 중 가장 큰 것은 엘새 개근 선물이 아닌 말씀의 은혜와 기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사는 2021년을 살아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양준서(10학년)

이번 엘새는 온라인으로 드렸기에 특별했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시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마치고, 2021년

베델사역
조찬사역

피어나는 사역 봉오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인 베델의 식구들끼리도 서로 오지도 가지도 못해 너무나도 답답하고 지루했던 지난 일 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새로이 시작된 2021년과 함께 하는 베델의 첫 사역은 "은퇴 목사님 가정 설맞이 과일바구니 전달"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베델 조찬 사역의 일환으로 은퇴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교회로 모셔 정성스러운 식사를 대접해 드리곤 했었는데, 올해는 식사 대접 대신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은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 은퇴 목사님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새해 인사를 올리는 사역이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양질의 과일을 찾느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교회 코트 야드에 모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쁜 바구니에 과일을 담아 멋지게 장식하는 등 모든 준비과정을 통해, 왠지 모르지만 가슴이 뜨거워지고 꼭

막혀있던 것이 뿔뿔이 뚫리는 듯한 시원한 감동이 밀려옴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꿈틀거리는 강한 사역 본능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매주 교회를 오가던 길이 낯선 느낌이 들 정도로 현장 예배와 교회에서의 사역이 저 멀리 기억 속의 일이지만 했었는데, 이제 교회 마당을 직접 두 발로 밟으며 분주히 오가는 발걸음들이 어찌나 가볍고 경쾌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역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사람을 섬기는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한마음으로 섬겨주신 조찬 사역 팀원 여러분들, 특히 매장에서 구입해야만 했던 예쁜 바구니와 형견 등을 기꺼운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어 구입해주시는 조찬 사역팀 데코레이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과일 바구니를 안고 은퇴 목사님들의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해 주시느라 수고해주신 베델의 부목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한 해도 주님의 몸된 우리 베

델 교회를 위해 늘 사랑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은퇴 목사님들께 주님 주시는 강건함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김철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셀/기도: 박경철 목사
 베델워십: 김성리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고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 손용주 목사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삼채플(청년): 서찬석 목사
 예삼채플(청년):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박정영, 차은하, 이사무엘
 오케스트라: 박정영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해경
 오르간: 이정은, 이해경, 박정연
 솔리스트: 최정원, 백동휘
 밴드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영아부: 윤희준 간사
 유년부: 김재은 간사, 장지혜 간사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중형, 장석영,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베델 방역팀을 모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예배는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재개되는 현장 예배를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 된 베델 교회 최전선에서 모든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으로, 자녀들과 성도님의 안전한 현장 예배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과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으로 예배의 감격이 더하여지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시설을 맘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사역에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방역팀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동반 가족은 '방역팀 가족'으로 등록하시면 현장 예배 신청시 QR코드를 받으셔서 매주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용되는 소독용 알코올은 인체에 무해하며 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복 일체가 제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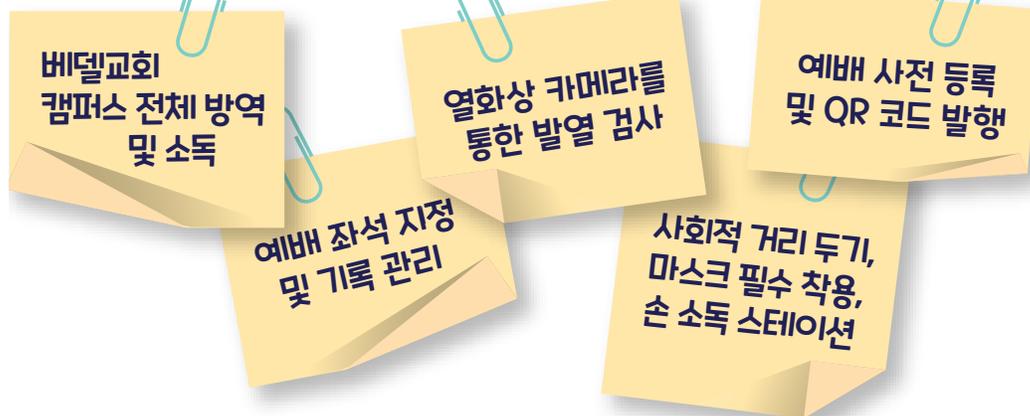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성도님들께서 더욱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역에 함께 하실 많은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일시: 3월 7일(주일)부터 매주
 시간: 1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4시
 2팀: 매주 주일(1부 예배 후) 오전 8시-8시30분(마감)
 3팀: 매주 주일(2부 예배 후) 오전 10시 30분-11시
 문의: 임낙현 장로 (949)383-7177, 강정훈 집사 (949)275-0364



베델교회 실내현장 예배를 위한 방역 수칙

베델교회는 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석(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경),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길진명)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선교작정헌금 - 노란색 봉투로!** 오늘은 각 성도님께서 올해에 작정하신 선교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 **베델교회 현장 예배 안내** 이번 주일(7일)부터 주일 1, 2, 4부 예배를 실내에서 현장예배로 드립니다. 현장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checkin,bkc.org)

토요 0부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계속되며 3월 7일(주)부터 본당 실내 현장예배가 시작됩니다!

현장예배 신청 전 자가 점검을 해주세요!
-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와 직간접으로 접촉하신 분
- 발열 37.5 °C / 99.5 °F 이상, 기침, 호흡 곤란 등 유사 증상이 있는 분
- 위 조건에 있는 분의 동거가족인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예배 및 각 부서 현장 예배 안내>

- 유아부 현장예배
일시/장소/인원 제한: 3월 28일 2부 예배, 본당 2층 영아부실, 10명(학부모 포함 20명)
 - 유치부 현장예배
일시/장소/인원 제한: 3월 28일 2부 예배, 식당, 12명
 - 유년/초등부 현장예배
일시/장소/인원 제한: 3월 21일 2부 예배, 체육관, 30명(변동 가능)
 - 한어 중고등부(CIM) 현장예배
일시/인원 제한: 3월 14일, 20명
 - 영어 중등부(BYM Jr, High) 현장예배
일시/인원 제한: 3월 28일, 20명(7, 8학년)
 - 영어 고등부(BYM High School) 현장예배
일시/인원 제한: 3월 14일, 20명(12학년) 3월 28일, 20명(9-10학년)
3월 21일, 20명(11학년) 4월 4일, 20명(9-12학년)
 - 예살 채플(청년)은 3월 7일(주일)부터 4부 실내 현장예배로 드립니다.
 - 일본어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 *모든 자녀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유아부 현장 예배를 참석하시는 부모님은 1부 현장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2부에 자녀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별 예배에 방역을 실시합니다.

◆ **썸머 타임(Daylight Saving Time) 시작** 다음 주일인 3월 14일부터 썸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주일예배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2시가 3시로 됩니다)

◆ **베델 방역팀 모집** 코로나 팬데믹 최일선에서 베델교회의 모든 시설을 철저한 방역으로 자녀들과 성도님들의 안전한 현장예배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7면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 임낙현 장로 (949)383-7177, 강정훈 집사 (949)275-0364

◆ **베델 큐!** 3월 7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베델의 새로운 수요 프로젝트 "베델이 간다, 베델 큐"가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 4면을 참고해 주세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성균 집사 (949)838-4110

◆ **제27차 제자반 주행** 제자훈련 훈련생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행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임 이후, 각 제자반별 모임을 잠시 갖습니다.
일시/장소: 3월 19일(금) 저녁 7시 30분, 본당

◆ **태국 선교(온라인)팀원 모집** 온라인으로 선교 훈련도 받고, 선교지에 선교영상편지도 보내고, Zoom 미팅을 통해 선교사님과 만남의 시간도 갖고, 토요 헬시바 기도회에서 선교영상보고도 하는 등 10주 운영플랜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선교에 팀원을 모집합니다.
일정/문의: 3월 14일(주일)-5월 22일(토), 최호경 집사 (512)947-7291
신청 방법: 홈페이지 '선교팀 신청 바로가기'

◆ **"To Be Like Jesus" 성경 속으로 GOGO!** 더 깊이 말씀을 공부하기 원하는 초등부 학생들과 Jamie 전도사가 Zoom을 통해 학년별로 모입니다. 코로나로 영적으로 무뎠던 쉬운 시기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모임 시간: 4학년: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5학년: 매주 주일 오후 5시
6학년: 매주 주일 오후 4시
문의: Jamie Kim 전도사 (714)822-7552

◆ **BYM 중등부 PTA 미팅** BYM 중등부에서 학부모님들과 미팅을 준비합니다. 3월 28일(주일)부터 열리는 주일 현장예배와 안전을 위한 절차 및 학부모 기도모임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오니 꼭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3월 24일(수), 오전 10시 45분 - 11시 15분
방법: 온라인 Zoom (BYM 중등부 학부모 카톡방 통해 공지 예정)
문의: 현호승 전도사 (949)854-4010,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온라인 어린이 창조과학 캠프** 학교에서의 잘못된 진화론의 가르침으로 혼동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배우는 어린이 창조과학 캠프에 초대합니다. 교회 웹사이트와 베델교회 카톡 메시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강사: 3월 14일(주일) - 3월 27일(토), Michelle Inhee Kim
대상: 4-6학년 (2020-2021 School Year)
사이언스 프로젝트 Drive Thru : 4월 18일(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등록비/문의: 베델교인 \$30(교인번호 필수), 타교인 \$50, 안지호 집사 (949)241-1807

◆ **축하해 주세요** 장혜영 집사의 아들 장유진(Eugene)군과 Demi Nguyen 양의 결혼식이 3월 6일(토)에 있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故 이용순 권사님께서(이현길 집사의 부인, 이동욱 집사의 모친, 도진미 집사의 시모) 3월 4일(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오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 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 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 보내주세요.
------------------	--	---

Stop the love of money

(Hebrews 13:5-6)

1. It is said the most difficult preaching is "preaching about money." If you were to score today's sermon out of 10, what would you give it?
2. The preacher of Hebrews seems to have delivered this message with the believers in mind who lost money because of their faith (Ref/Hebrews 10:32, 34). Money cannot be said to be evil itself. What are the warnings in the following verses?
 - Matthew 6:24 "No one can serve two (). Either you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you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
 - 1 Tim. 6:10 For the love of ()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
3.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about money.
 - Money is not (), but ().
 - Rich = No ().
 - Rich = No ().
4. The secret of keeping your lives free from the love of money is being content with what you have. (V 5) As you read the following verses, what do you think the secret of the self-sufficiency of the Hebrew preacher and the apostle Paul is? (V 6, Philippians 4:11-13)
5. We look at the rich and say, 'they live well,' but the life of living truly well would be the one of those who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God's grace. Look for the fruit of self-sufficiency in you as you read the following verses. (Ref/ Matt 6:21, 2 Cor 6:10, 2 Cor 8:9)

Apply to Life

